



대형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미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비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어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밖으로 구하면 노에 생활과 같아

주인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스님 법문에서 주인공에 말기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주인공은 내 몸 속에 있는 것인지, 우주 허공법에 가득찬 것인지,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과 주인공은 어떻게 다른지 이런 점들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열불이나 기도를 꼭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들어 여쭙보는 겁니다.

고 아무리 해도, 자기가 해 놓은 일을 우주법계에서 알고 있는 이상 죄는 사해지지 않고 공덕은 하나도 없으며, 어느 것 하나도 실행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그 땅을 짚고 일어나는 법이지 다른 곳을 짚고 일어나는 법이 없죠. 거기서 나오는 거라면 거기서 해결을 하게 해야지요. 다른 곳에서 해결을 해주고 빼앗아 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끌고 다니는 참 자기부터 알아



그림 · 최주현

내 앞에 주어지는 대로 충실하고 진실하게 하는 것이 부처님 법이며 여여함입니다

수행의 문은 많이 있습니다. 열불을 해서 들어가는 문이 있고, 경을 읽어 가는 문이 있고, 선을 해서 가는 문이 있듯이 이 문 저 문 여러 가지의 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 밖에 나가면 모두 다른 문이 아닙니다. 주인공! 즉 마음 자체는 내 놓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빚잡도 없습니다. 허공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와 같은 겁니다. 지금 거사님이 말을 하는 것도 주인공이 없으면 말을 못해요. 그것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를 다스리며 이끌고 다니는 참 자기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성입니다. 자성불이 동해서 돌아가니 주인공이예요. 고정됨이 하나도 없이 돌아가니까요. 그렇게 붙잡을 것이 없으면서 여전히 말을 하게 하니 이 생각 저 생각 나게 하고, 이것 저것 보게 하고, 이것 저것 듣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집중이 안 됩니까?

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왔는지 알면 어디로 갈 건지도 알 것이고, 어디로 갈 건지 아는 사람은 현실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알 것입니다. 그러나 법신불이시여 나를 이렇게 해주시오 저렇게 해주시오 한다면 그건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지요. 이인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해주십시오 하면서 밖으로 구하는 게 아닙니다. 수억겁 광년으로부터 쫓고 쫓기면서 진화시켜온 그 장본인이 바로 자기이며,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니 모든 것에 얼마나 경력이 많았어요. 그러나 안에도 모든 것을 맡겨 놓고 일체 만법을 응용하는 것으로 말하고 듣는 것도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고 생사도 거기에 있을 줄 알아야 해요. 나는 육신을 가지고 심부름하는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으며, 나에게 돈이 있다면 나는 관리인일 뿐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인 것이니 주인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고 거기에서만 할 수 있다는 걸 진심으로 믿어야 해요. '할 수 있다' 이지 '해주시오' 가 아닙니다. '해주시오' 는 벌써 돌로 보고 바는 게 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고 바로 믿고 들어간다면 그것이 바로 행이며 실천하는 것이죠.

아침마다 법신불에 기도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거룩하신 법신불이시여'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주인공이시여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과 불생불멸의 정체는 평소애 자신을 되돌아 보면, 마음이란 끊임없이 생멸하는 것임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생멸하는 마음의 정체는 무엇이며, 불생불멸하는 한미음과 어떻게 다른지요.

그와 같은 방법은 밖으로 향하기 때문에 기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항상 '해주시시오' 한다면 노에 생활에 불과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를 이렇게 해주시오' 그렇게 해주시오 죄를 사해주시오' 하

는 방식으로 제정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으로 중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

내게 닥치는 안팎 경계 공부시키는 재료 근본성품 둘 아는데 너·나 가르는데 무명

쉽게 말해서 생명과 불생불멸이 다르다고 할 때,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사람이 없어질지 않습니다. 나무를 베어 없앴다고 해도 나무 그 자체가 또 다른 모습으로 변화했을 뿐,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살았다 죽었다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생각할 때 생명이지만, 포괄적으로 볼 때는 불생불멸인 것입니다. 부셔지고 변하고 하면서도 이 진리는 끊어지고 변함없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생불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깨달으면 불생불멸이라는 그 언어에도 도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을 기르는 직업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세계로 들어간다면 한미음 법을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는지요. 세상살이 만사가 학생 마음에 가 설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공부를 한들 부처님 법 아님이 없는 데 예를 들어, 인간도 뿌리가 있어야 몸이 있고 몸이 있어야 행이 있듯이 모든 건 주인공,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 해도 함이 없이 하라 이 소리입니다. 학생의 송장덩어리가 보는 게 아니거든요. 눈이 보게 하고, 귀로 듣게 하고, 손을 움직이게 하고, 몸을 움직이게 하는 등 전체를 움직이게 하니 전체를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망상이고 자전 망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바와 같이 '일체가 나 같이 살라' 했으니 하나도 버릴 게 없다 하는 것이죠. 내 앞에 주어지는 대로 충실하고 진실하게 하는 것이 부처님 법이며 그대로 여여함이요. 그 책을 누가 보게 하고 누가 생각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친정 부모님의 화목하지 못하고 늘 다투는 모습을 보았고, 이복 남동생은 너무 혼들리고 나약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언제나 동생이 안스럽고 불쌍한 마음이 가지만 만사 얼굴을 보면 고운 말한마디가 나가지 않게 됩니다. 정말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저의 시댁에는 막내 시동생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시어머니나 가족들이 몹시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큰머리라 시댁에 갈 때마다 신경이 곤두서고 시부모님 사후에 어떻게 막내 시동생을 대해야 할지 생각만 해도 앞이 캄캄합니다. 시동생이 간혹 스트레스 풀이로 어머니나 가족을 구타하여 고생이 상당합니다. 큰스님 정말 두렵습니다. 이 모든 것이 되는 업으로 인해 저에게 다가오는 것이라도 무섭습니다. 저의 남편도 일이 잘 안풀려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 문제는 저희 부부가 열심히 살면 되는 것이라지만 저와 인연을 맺은 가족들의 불화와 불행한 삶

지식탐구와 수행 상반되는지...

저는 평생 세속의 학문과 지식을 탐구해 보고 싶어서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심과 분별심을 버리고 주인공에 맡겨야 된다고 하십니다. 평소애 그렇게 학문과 지식의 세계를 탐구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랑심과 분별심

를 해야 할까요? 저의 주변에는 불행한 하게 하는지 그것을 알면 돼요. 가족의 불화·불행 심합니다. 한미음선원에서 펴낸 큰스님 말씀은 담은 여러권의 책을 읽어 봤습니다. 읽을 때는 그대 바로 그거야 모든 것이 니로 인해 출발하는 것이야 큰스님의 가르침대로 내지신을 갈수록 관하고 끊임없이 공부하며 남이 남이 아닌 듯 니로 여기고 행하면 고도 고가 아님을 순간 알지만 다시 눈을 들어 생활을 하면 오로지 철저히 니만을 생각하게 되고 남의 불행을 보면 내가 당하지 않아서 디행이라는 생각을 먼저하게 됩니다. 어려운 것은 피하게 되고 편안한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합니다. 시어머니로부터 한미음선원에 자주 나가서 마음공부도하고 좋은 법문도 듣고 오라는 권유도 받지만 가이저 하면서 녹장을 부리거나 피를 내어 발길을 돌립니다. 큰스님의 가르침을 따르려면 어떠한 자세로 공부를 해야 할까요? 저의 주변에는 불행한

내가 무엇을 바라기 전에 지극한 마음으로 자아부처에 공양을 올려야 합니다. 놓고 관하는 법부터 배워서 실천해 보세요. 누군들 마음 편하고 즐겁기를 바라지 않았습니까만 이 도리를 모르고서는 컷바퀴에서 벗어나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 현실은 너무 짓눌려서 애를 쓰기보다 하루라도 빨리 마음공부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겁니다. 내게 주어진 현실을 내가 아무리 마음으로 거부한다 해도 현실입니다. 그것을 탓하고 자기 신세를 한탄한다고 해서 해결책이 나서지도 않을 뿐 아니라 누가 대신 아파주고 대신 떠안아줄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아공에서만이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가까운 지인일 가시거나 본인 스님들께 놓고 관하는 법을 배워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은 금팔찌 때문에 고민

일주일마다 마음공부 함에 흐트러진 자세를 바로 하고자 학교 뒤에 있는 사찰에서 108배를 올리고 나서 학교사무실에 들어가는 순간 24K 순금 팔찌가 놓여져 있지 않았습니까? 누가 사취하고 가져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 것을 본 순간 여러생각이 일어났습니다.

자성부처가 백중날 천도할 비용으로 준 것이 아닐까 등 다른 생각이 무수히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큰스님 가르침에 따르면 머리 굴리지 말고 그대로 안으로 관하여서 믿고 놓아라 하는 말씀이 떠올라 그것을 가지고 경비실에 신고하고 나서 보살을 찾아 가라는 종이를 붙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이 귀찮아 개운치 않은 점이 있어서 내가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판단이 일어났습니다. 큰스님 법문을 부럽습니다.

내게 닥치는 안팎 경계가 다 나를 공부시키는 재료 기회입니다. 그런데 다가오는 경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거기에 얽매어 울고 불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놓고 관하여서 믿고 놓아라 하는 말씀이 떠올라 그것을 아는 경우라면 놓고 관하고 할 것도 없이 즉각 행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자동적으로 말입니다. 더는 무슨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여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으로 중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

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1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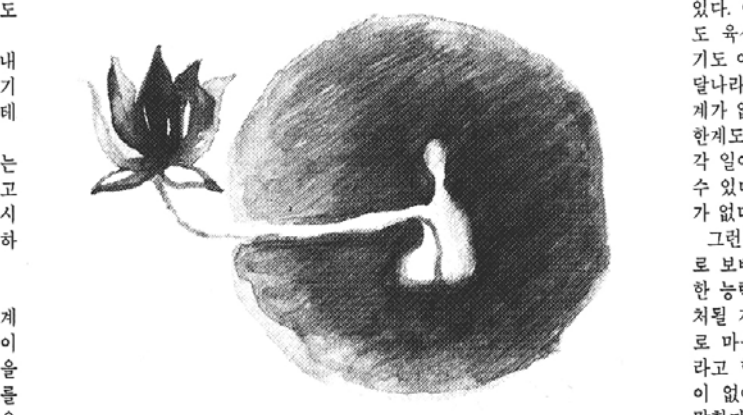
자기 보공의 열쇠를 잃고 남보고 열어 달라고 할까.

"자기가 자기를 믿지 못하면 마음의 열쇠를 받을 수 없다.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공의 열쇠를 맡기겠는가. 내 속에 칠보가 가득 차 있으나 못났다는 생각, 잘났다는 생각 다 버리고 자기를 믿어라. 자기부처를 믿어라. 자기부처야말로 안되는 것도 되게 할 수 있다. '되게 할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면 돌 위에 세워 놓아도 산다. 자신의 본래 모습인 자기부처, 주인공을 철저히 믿어라. 진실한 마음으로 주인공을 믿고 거기에 모든 경계를 되돌려 놓아라. 주인공은 어디 있는가? 인격체인가? 텅 빈 것인가? 하는 따위의 생각은 필요없다. 오로지 간절한 믿음만을 앞세워라. 수억겁 이전부터 자신을 끌고 다니며 공놀이를 해 온 근본을 어떻게 믿지 못하는가?"

자신을 믿으라고 하면 사람들은 대체로 의아해 한다. 날 믿으라니? 내게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이 세상에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도 많겠지만 인간의 능력엔 한계가 있게 마련인데 믿어봤자 별 수 있겠나? 그런 생각부터 떠올린다. 그래도 믿을 곳은 자신밖에 없다고

하면 또 '계엔 원력이 없어서'하든가 아직 공부 가 덜 되어서...'라고 대꾸한다. 일단은 맞는 말이다. 사람의 능력이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뛰어난 사람이라도 그 능력엔 한계가 있다. 멀리 볼 것 없이 자신의 능력으로 제 욕심을 다 채우지 못하는 사실만 보아도 그렇다. 하고 싶은 게 좀 많은가? 하지만 내 힘으로 그걸 다 이룰 수 없으니 자기가 자기를 믿어본들 '그게 그것'일테지. 그러기에 사람들은 '어디 능력자는 없나?' '어디 영험한 곳은 없나?' 하고 찾아 헤매게 된다. '부처님 도와주십시오.' '관세음 보살님 살피주세요.' 하는 까닭도 거기에 있다.

유위법으로 보면 인간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개인적인 차이도 현격하다. 그래서 더 많은 능력을 원하게 마련이고 그것을 키울 방도를 따라 노력도 하게 된다. 나보다 나은 능력자를 찾아 그에게 의지해 보기도 한다. 급기야는 '전지전능한 분'에게 매달리고 싶어진다. 하느님! 부처님! 보살님! 하게 되고 여기 저기 찾아다니며 빌어도 보고 갈구도 해본다. 그러나



자기를 믿을 새가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자기가 자기를 믿지 못하면 마음의 열쇠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은 유위법이 아닌 무위법을 이룬다.

제 육신을 갖고 뛰는데는 한계가 있다. 아무리 달리기를 잘하는 선수라도 육신을 갖고는 1초에 10미터를 뛰기도 어렵다. 하지만 마음으로야 1초에 달나라인들 못 가겠는가. 무위법엔 한계가 없다. 시간의 한계도 없고 거리의 한계도 없다. 그야말로 즉각이다. 한생각 일어나는 찰나에 마음은 어디든 갈 수 있다. 걸리는게 없다. 안 통하는 데가 없다. 그런 마음을 누구나 갖고 있으니 바로 보배를 지니고 있음이요 스스로 무한 능력자인 것이다. 일체중생이 다 부처될 자격을 갖고 태어났다는 말은 바로 마음법을 이룬 것이다. 일체유심조라고 할 때의 그 마음은 아무런 걸림이 없어 그야말로 무애자재한 마음을 말한다. 그런 마음이니 누구나 다 계속해 칠보로 가득찬 보공이 있다고 하지 않겠는가.

보공은 단혀있다. 하지만 잠겨있다.는 것은 열쇠만 있으면 누구라도 열 수 있다는 뜻이다. 열쇠만 손에 넣으면 무한량의 보배가 내 발 앞에, 내 치마폭에 쏟아져 내리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귀가 많도록 이치가 그렇다고 말해주어도 믿으려 하질 않는다. 믿질 않고 밖으로 찾아 헤맨다. 동냥 버릇이 몸에 배기라도 했다는 것인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어쩌면 그렇게 헤매려 할 것이다. 매화가 피었다는 소식을 듣고 온 산천을 헤매다가 지쳐서 돌아왔더니 뜰 앞에 매화가 빙그러져 있더라는 얘기와 같다.

오늘의 자기를 여기 이렇게 존재하도록 만든 그 주인공.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선 그 주인공을 믿고 봐야지 달리 무엇을 믿겠는가. 예까지 끌고 왔으니 내일도 끌고 갈 것이거늘 그 사실조차도 믿지 못한다면 무일 믿겠는가. 가서 빌면 청을 들어주고 내 대신 일을 해준다는 확약이라도 내었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런 계 생각으로 제가 그렇게 믿는 것에 불과하다. 거길 믿으면서 자기 참부처, 주인공은 왜 못 믿나?

협찬 : 박문선 김병일 김윤기 김세욱